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① 총론)

목 차

■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① 총론)

Executive Summary	i
1. 연구 배경	1
2. 바람직한 경제발전의 원천 및 방법	2
3. 한국경제 9대 부문 ^별 비전	6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 연구 배경

현재 한국경제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역동성의 실종을 들 수 있다. 과거 가장 큰 장점이었던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의 '활력 경제'에서 현재는 경직적이고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화석 경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국제 위상의 추락이다. 한국은 20세기 들어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에서 탈출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보인 모범국가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 졌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신흥개도국들에게 위상이 밀려가는 '성장판이 닫힌 중진국'이 되었다. 셋째, 경제의 지의 상실이다. '개혁과 도전 정신'으로 표현되던 기업과 근로자의 모험정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아가기' 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한 '현상유지와 안위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간 대립의 심화이다. 경제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富)는 커지지 않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소득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 간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서로에 대해 '반목과 불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바람직한 경제발전의 원천 및 방법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 원천은 '역동 경제'이고 경제발전 방법은 '공동체 성장'이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발전 원천(역동 경제)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미래상이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할 3대 키워드로 ① 역동 경제, ② 소통 경제, ③ 융화 경제를 제시한다. 역동(力動) 경제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소통(疏通) 경제란 미래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원활한 소통(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융화(融和) 경제란 이는 최근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다양한 사회계층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경제발전 방법(공동체 성장)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람직한 한국의 경제발전 원천인 ① 역동 경제, ② 소통 경

제, ③ 융화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서로, 모두, 같이)’라는 의미를 가진 ‘공동체(共同體) 성장’의 키워드를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경제의 질적 성장, 국민 인식의 성숙, 사회 자정 기능 강화 등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전진만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국가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모든 주체들이 같이 갈수 있는 경제발전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방법들에 ‘함께(서로, 모두, 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공동체(共同體), 즉 경제활동 동기, 행동양식 등을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공동체(共同體) 성장』을 경제발전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공동체(共同體)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공존(共存) 성장, ② 공감(共感) 성장, ③ 공익(共益) 성장, ④ 공조(共助) 성장, ⑤ 공영(共榮) 성장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 9대 부문별 비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역동경제와 공동체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총서는 본 보고서 (① 총론)와 9개의 분야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다. 9대 부문은 『성장』, 『산업』, 『기술』, 『통상』, 『고용』, 『복지』, 『인구구조』, 『기업』, 『남북경협』이며, 각각의 보고서는 비전(목표), 전략, 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한국경제 9대 부문별 비전

9대 부문	부문별 비전(목표)
성 장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산 업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
기 술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
통 상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고 용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
복 지	한국형 복지 시스템 수립을 통한 복지선진국 진입
인구구조	핵심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기 업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남북경협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연구 배경

□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 역동성 실종: ‘활력 경제’에서 ‘화석 경제’로

- 한국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실종되면서 경직적이고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화석 경제’가 됨

- 국제위상 추락: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에서 ‘성장판이 닫힌 중진국’으로

- 한국경제는 20세기 들어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에서 탈출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보인 모범국가로 칭찬을 받았으나, 이제는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신흥개도국들에게 위상이 밀려가는 중진국 함정이 고착화됨

- 경제의지 상실: ‘개척과 도전 정신’에서 ‘현상유지와 안위의 분위기’로

- 장기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내 패배주의가 만연하여 모험정신이 실종되고 경제주체들이 ‘나아가기’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한 실정임

- 경제주체간 대립: ‘신뢰와 믿음’에서 ‘반목과 불신’으로

- 경제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富)는 커지지 않는 반면, 사회 불평등에 대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됨
- 이러한 갈등이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 간 신뢰마저 훼손하고 서로에 대해 믿지 못하는 반목과 불신이 팽배함

-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경제 및 사회의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음¹⁾

1) 이번 연구총서는 본 보고서 (① 총론)와 9개의 분야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음.

2. 바람직한 경제발전의 원천 및 방법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경제발전 원천은 ‘역동 경제’이고 경제발전 방법은 ‘공동체 성장’이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

□ 경제발전 원천(역동 경제)

-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미래상이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할 3대 키워드로 ① 역동 경제, ② 소통 경제, ③ 융화 경제를 제시함²⁾

① 역동(力動) 경제

- 경제발전 동기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확보해야할 경제발전의 원천은 ‘역동 경제’로 판단됨
- ‘역동 경제’라 함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모험을 기꺼이 감수(risk-taking)하는 것을 말함

② 소통(疏通) 경제

- 급격한 미래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제발전의 원천을 찾는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할 미래상은 ‘소통 경제’임

2) 경제발전(성장)의 원천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을 의미하며 과거 정부들마다 출범 초기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성장원천을 제시한 바 있음. 그 예로는 『신경제(김영삼 정부)』, 『지식기반경제(김대중 정부)』, 『혁신주도형경제(노무현 정부)』, 『녹색경제(이명박 정부)』, 『창조경제(박근혜 정부)』 등을 들 수 있음.

- ‘소통 경제’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원활한 소통(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경제를 의미함
- 이를 통해 경제 내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합리성이 없어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

③ 융화(融和) 경제

- 마지막으로 사회분위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융화경제’를 제시함
- 이는 최근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다양한 사회계층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됨
-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고 이념과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원천임

<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3대 경제발전 원천

경제발전의 원천	의 미	성 격
역동(力動) 경제	모든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경제	경제발전 동기적 측면
소통(疏通) 경제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원활한 소통(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경제	산업·기술적 측면
융화(融和) 경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고 이념과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여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사회분위기적 측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발전 방법(공동체 성장)

-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람직한 한국의 경제발전 원천인 ① 역동 경제, ② 소통 경제, ③ 융화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서로, 모두, 같이)’라는 의미를 가진 ‘공동체(共同體) 성장’의 키워드를 제시함
- 한국경제는 경제의 질적 성장, 국민 인식의 성숙, 사회 자정 기능 강화 등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전진만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국가 발전 단계로 진입함
- 따라서 모든 주체들이 같이 갈수 있는 경제발전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방법들에 ‘함께(서로, 모두, 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공동체(共同體), 즉 경제활동 동기, 행동양식 등을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공동체(共同體) 성장』을 경제발전 방식으로 선정함
- 『공동체(共同體)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공존(共存) 성장, ② 공감(共感) 성장, ③ 공익(共益) 성장, ④ 공조(共助) 성장, ⑤ 공영(共榮) 성장을 제시함³⁾

① 공존(共存) 성장

- 모든 경제주체들이 서로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존재해야 사회와 경제의 구조가 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

② 공감(共感) 성장

3) 5대 경제발전 방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① 공존(共存) :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 ② 공감(共感) :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 ③ 공익(共益) : 공동의 이익.
- ④ 공조(共助) :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거나 서로 도와줌.
- ⑤ 공영(共榮) : 함께 번영함.

- 공존하는 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

③ 공익(共益) 성장

- 경제주체들 간의 공감의 바탕이 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가 정립된다 것을 의미

④ 공조(共助) 성장

- 모든 경제주체들이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 한다는 것을 의미

⑤ 공영(共榮) 성장

- 이를 통해 모든 주체들이 번영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

<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공동체 성장의 방법

경제발전방법	내 용
공존(共存) 성장	모든 경제주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
공감(共感) 성장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는 것
공익(共益) 성장	모든 경제주체들 간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하자는 목표가 정립된다 것
공조(共助) 성장	모든 경제주체들이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 한다는 것
공영(共榮) 성장	모든 경제주체들이 번영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는 것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한국경제 9대 부문별 비전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주요 9대 부문인 『성장』, 『산업』, 『기술』, 『통상』, 『고용』, 『복지』, 『인구구조』, 『기업』, 『남북경협』에 대하여 각각의 비전(목표)을 정립하고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⁴⁾

□ 『성장』 부문 비전

- 성장 부문의 비전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를 제시함

□ 『산업』 부문 비전

- 산업 부문 비전은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을 제시함

□ 『기술』 부문 비전

- 기술 부문 비전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을 제시함

□ 『통상』 부문 비전

- 통상 부문의 비전은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를 제시함

□ 『고용』 부문 비전

- 고용 부문의 비전은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제시함

4)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연구총서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9대 분야의 전략과 과제는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개별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복지』 부문 비전

- 복지 부문 비전은 “한국형 복지 시스템 수립을 통한 복지선진국 진입”을 제시함

□ 『인구구조』 부문 비전

- 인구구조 부문 비전은 “핵심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을 제시함

□ 『기업』 부문 비전

- 기업 부문의 비전은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제시함

□ 『남북경협』 부문 비전

- 남북경협 부문 비전은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을 제시함

<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한국경제 9대 부문별 비전

9대 부문	부문별 비전 (목표)
성 장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산 업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
기 술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
통 상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고 용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
복 지	한국형 복지 시스템 수립을 통한 복지선진국 진입
인구구조	핵심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기 업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남북경협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